



서 있는 사람, 2019 — 철도 침목, 높이 250×340cm, 44점.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설치. © 정현, PKM 갤러리 제공.

정현

CHUNG Hyun 鄭鉉 · 1956년 인천 출생

버려진 산업 재료 — 철도 침목, 아스팔트, 탄화목, 고철 — 를 기억과 인내의 형상으로
빛어내는 한국의 조각가.

약력

정현(1956년 인천 출생)은 동시대 한국 조각을 대표하는 작가다. 30여 년간 버려지고 풍화된 재료 — 철도 침목, 아스팔트, 탄화목, 고철 — 에 형상을 부여하며, 그 안에 축적된 시간과 상처에서 인간의 강인한 형상을 길어 올려 왔다. 2006년 국립현대미술관 '올해의 작가'로 선정되었고, 2016년 파리 팔레 루아얄 정원에서 *L'homme debout*로 파리에 데뷔했으며, 2024년 아트바젤 마이애미 비치에서 개인 부스를 선보였다. PKM 갤러리(서울) 전속.

작가의 말

"세상에 하찮은 것은 없다 — 빛나지 않는 것들에 주목한다."

"잘 겪은 시련은 언제나 아름답다."

"오랜 시간을 견뎌낸 재료 자체가 작품이며, 그 질감이 곧 정신이다."

팩트시트

이름	정현 (CHUNG Hyun, 鄭鉉)
출생	1956년, 인천
거주·작업	서울 거주 · 파주 작업실
학력	홍익대학교 조소과 (학사·석사); 파리국립고등미술학교 (1990)
갤러리	PKM 갤러리, 서울
재료	철도 침목, 아스팔트, 탄화목, 고철, 청동, 석고, 석탄
대표 연작	서 있는 사람 (<i>L'homme debout</i>)

주요 개인전

2025 그의 겹쳐진 순간들, PKM 갤러리, 서울
2025 낮은 물질들로 쓰여진 시, 청주시립미술관
2023 덩어리, 남서울시립미술관, 서울
2022 시간의 초상: 정현, 성북구립미술관, 서울
2018 정현, 금호미술관, 서울
2016 서 있는 사람(L'homme debout), 팔레 루아얄 정원, 파리
2006 올해의 작가 2006: 정현, 국립현대미술관, 과천

주요 수상

2024 제2회 김복진미술상
2014 제28회 김세중조각상
2009 제1회 한국미술평론가협회상 (AICA)
2006 올해의 작가, 국립현대미술관

주요 소장처

국립현대미술관 · 리움미술관 · 부산시립미술관 · 대전시립미술관 ·
경기도미술관 · 서울대학교미술관 · 포항시립스틸아트미술관 ·
금호미술관 · 사비나미술관

보도 문의

인터뷰 · 고해상 이미지 · 작업실 방문: hyun-eya@hanmail.net · 웹사이트: chunghyun.net · 전속·판매: PKM 갤러리, 서울 (pkmgallery.com)
· 위키데이터: Q140239322

크레딧: © 정현. 작가 및 PKM 갤러리 제공. 사진 크레딧은 요청 시 제공. — 본 자료는 작가 공식 웹사이트(chunghyun.net)와 공개된 출처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.